

□ 건강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은 운동 등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27.9%(29명)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지원이 18.3%(19명), 의사소통방법, 의사관계기술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지원이 14.4%(15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일반 청년 가구의 경우는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운동 공간 및 시설 제공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68]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건강지원 정책 : 1순위

구분		운동 등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의사소통방법, 대인관계기술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 내 운동 공간 및 시설 제공		규칙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요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체중관리, 금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연령별 변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7	32.1	7	13.2	9	17.0	7	13.2	9	17.0	3	5.7	1	1.9	0	0.0	0	0.0
성별	남자	17	32.1	7	13.2	9	17.0	7	13.2	9	17.0	3	5.7	1	1.9	0	0.0	0	0.0
	여자	12	23.5	12	23.5	6	11.8	7	13.7	3	5.9	6	11.8	2	3.9	2	3.9	1	2.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26.3	6	31.6	1	5.3	3	15.8	0	0.0	2	10.5	0	0.0	1	5.3	1	5.3
	방학권	10	50.0	0	0.0	1	5.0	5	25.0	4	20.0	0	0.0	0	0.0	0	0.0	0	0.0
	창동권	13	22.4	9	15.5	13	22.4	4	6.9	8	13.8	7	12.1	3	5.2	1	1.7	0	0.0
	도봉권	1	14.3	4	57.1	0	0.0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10	31.3	9	28.1	4	12.5	3	9.4	3	9.4	1	3.1	0	0.0	2	6.3	0	0.0
연령대	30대	16	32.0	6	12.0	9	18.0	6	12.0	5	10.0	7	14.0	1	2.0	0	0.0	0	0.0
	40대	3	13.6	4	18.2	2	9.1	5	22.7	4	18.2	1	4.5	2	9.1	0	0.0	1	4.5
계	위험군	29	27.9	19	18.3	15	14.4	14	13.5	12	11.5	9	8.7	3	2.9	2	1.9	1	1.0
	일반군	41	40.2	10	9.8	8	7.8	10	9.8	18	17.6	6	5.9	6	5.9	2	2.0	1	1.0

□ 마지막으로,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는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9%(28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이 21.2%(22명),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과 일상생활 기술 및 독립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응답(15.4%, 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4-169]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정책 : 1순위

(n=104)

구분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 에 관한 정보 제공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품앗이 및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및 독립생활교육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공유		명절, 생일 기념 행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0	18.9	12	22.6	15	28.3	8	15.1	3	5.7	3	5.7	2	3.8	0	0.0
	여자	6	11.8	10	19.6	13	25.5	2	3.9	1	2.0	13	25.5	4	7.8	2	3.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7	36.8	4	21.1	1	5.3	1	5.3	4	21.1	0	0.0	0	0.0
	방학권	4	20.0	5	25.0	7	35.0	2	10.0	0	0.0	1	5.0	1	5.0	0	0.0
	창동권	10	17.2	8	13.8	14	24.1	7	12.1	2	3.4	11	19.0	4	6.9	2	3.4
	도봉권	0	0.0	2	28.6	3	42.9	0	0.0	1	14.3	0	0.0	1	14.3	0	0.0
연령대	20대	8	25.0	8	25.0	10	31.3	1	3.1	2	6.3	0	0.0	2	6.3	1	3.1
	30대	5	10.0	12	24.0	13	26.0	6	12.0	2	4.0	8	16.0	3	6.0	1	2.0
	40대	3	13.6	2	9.1	5	22.7	3	13.6	0	0.0	8	36.4	1	4.5	0	0.0
계	위험군	16	15.4	22	21.2	28	26.9	10	9.6	4	3.8	16	15.4	6	5.8	2	1.9
	일반군	28	27.5	27	26.5	17	16.7	10	9.8	6	5.9	5	4.9	8	7.8	1	1.0

나. 사회적 취약계층 :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

□ 도봉구 취약계층 역시 더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대상임. 1인가구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적수급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영역별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도봉구 1인가구 내에서도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함.

1) 일반 특성

□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60.7%(34명)으로 여성(39.3%, 22명)보다 많았음.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창동권과 도봉권이 각 30.4%(17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쌍문권(23.2%,13명), 방학권(16.1%,9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 및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62.5%(35명)은 노인이었고, 중장년 세대의 공공부조 수급 대상 비율이 42.9%(24명)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년 세대가 37.5%(21명), 청년 세대가 19.6%(11명)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수준을 살펴보면, 취약 가구의 78.6%(44명)가 은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0] 응답자 일반 현황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4	60.7	225	50.7
	여자	22	39.3	219	49.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3	23.2	113	25.5
	방학권	9	16.1	102	23.0
	창동권	17	30.4	162	36.5
	도봉권	17	30.4	67	15.1
연령대	20대	1	1.8	72	16.2
	30대	7	12.5	91	20.5
	40대	4	7.1	80	18.0
	50대	9	16.1	99	22.3
	60대	35	62.5	102	23.0
생애주기별	청년	11	19.6	195	43.9
	중장년	24	42.9	215	48.4
	노년	21	37.5	34	7.7
은둔수준	일반군	12	21.4	225	50.7
	위험군	44	78.6	219	49.3
계		56	100.0	444	100.0

2) 건강 및 긴급 돌봄

- 도봉구 취약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와 비교하여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비교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28.6%(16명)에 그쳐, 일반가구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면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75.0%, 33명)고 응답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복합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음.

[표 4-171] 신체적 건강상태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나쁜 편		좋은 편		평균	나쁜 편		좋은 편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	64.7	12	35.3	2.18	24	10.7	201	89.3	2.92
	여자	18	81.8	4	18.2	2.09	48	21.9	171	78.1	2.7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9	69.2	4	30.8	2.15	20	17.7	93	82.3	2.82
	방학권	7	77.8	2	22.2	2.00	9	8.8	93	91.2	2.94
	창동권	11	64.7	6	35.3	2.24	35	21.6	127	78.4	2.79
	도봉권	13	76.5	4	23.5	2.12	8	11.9	59	88.1	2.93
연령대	20대	1	100.0	0	0.0	1.00	7	9.7	65	90.3	2.94
	30대	3	42.9	4	57.1	2.43	14	15.4	77	84.6	2.87
	40대	2	50.0	2	50.0	2.50	11	13.8	69	86.3	2.89
	50대	8	88.9	1	11.1	1.89	18	18.2	81	81.8	2.83
	60대	26	74.3	9	25.7	2.14	22	21.6	80	78.4	2.77
생애 주기별	청년	5	45.5	6	54.5	2.36	28	14.4	167	85.6	2.89
	중장년	20	83.3	4	16.7	2.04	35	16.3	180	83.7	2.84
	노년	15	71.4	6	28.6	2.14	9	26.5	25	73.5	2.74
은둔 수준	일반군	7	58.3	5	41.7	2.25	25	11.1	200	88.9	2.92
	위험군	33	75.0	11	25.0	2.11	47	21.5	172	78.5	2.79
계		40	71.4	16	28.6	2.14	72	16.2	372	83.8	2.85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도 그 어려움의 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일반가구에 비해 사회적 취약가구의 경우 우울감, 불안감,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자살생각과 관련한 문항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 욕구를 예측할 수 있음.

[표 4-172]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

(n=56)

구분		우울감	음주	불안감	스트레스	자살생각
성별	남자	2.41	2.00	2.24	2.71	1.94
	여자	2.86	1.50	3.05	2.95	1.8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85	1.85	2.62	2.69	1.92
	방학권	2.11	1.89	2.00	2.67	1.67
	창동권	2.35	1.41	2.18	2.53	1.71
	도봉권	2.88	2.12	3.18	3.24	2.24
연령대	20대	1.00	1.00	2.00	2.00	1.00
	30대	2.57	1.71	3.00	2.86	1.86
	40대	2.50	1.50	2.75	3.00	1.75
	50대	2.89	1.67	2.33	2.89	2.22
	60대	2.57	1.91	2.51	2.77	1.89
생애주기 별	청년	2.45	1.64	2.91	2.91	1.82
	중장년	2.79	1.71	2.50	2.75	1.96
	노년	2.43	2.00	2.43	2.81	1.90
은둔 수준	일반군	1.75	1.83	1.92	2.42	1.25
	위험군	2.82	1.80	2.73	2.91	2.09
계	취약가구	2.59	1.80	2.55	2.80	1.91
	일반가구	1.89	2.02	1.91	2.37	1.61

□ 사회적 취약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 상황 시의 대처 (58.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불안감(21.4%)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73]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1순위)

(n=56)

구분		위급시 대처	경제적 불안감	홀로 식사	심리· 정서 어려움	일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비동거 가족 걱정	주거 불안	고독사 불안	이웃 부족
		%	%	%	%	%	%	%	%	%	%
성별	남자	58.8	20.6	2.9	2.9	2.9	0.0	2.9	2.9	2.9	2.9
	여자	59.1	22.7	4.5	4.5	0.0	4.5	0.0	4.5	0.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6.9	15.4	0.0	7.7	0.0	0.0	0.0	0.0	0.0	0.0
	방학권	55.6	0.0	22.2	0.0	0.0	0.0	0.0	0.0	11.1	11.1
	창동권	58.8	23.5	0.0	5.9	0.0	0.0	5.9	5.9	0.0	0.0
	도봉권	47.1	35.3	0.0	0.0	5.9	5.9	0.0	5.9	0.0	0.0
연령대	2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30대	57.1	42.9	0.0	0.0	0.0	0.0	0.0	0.0	0.0	0.0
	40대	50.0	0.0	0.0	25.0	0.0	0.0	0.0	25.0	0.0	0.0
	50대	66.7	0.0	0.0	0.0	0.0	0.0	11.1	11.1	11.1	0.0
	60대	60.0	25.7	2.9	2.9	2.9	2.9	0.0	0.0	0.0	2.9
생애 주기별	청년	54.5	27.3	9.1	0.0	0.0	0.0	0.0	9.1	0.0	0.0
	중장년	66.7	16.7	0.0	4.2	0.0	0.0	4.2	4.2	4.2	0.0
	노년	52.4	23.8	4.8	4.8	4.8	4.8	0.0	0.0	0.0	4.8
은둔 수준	일반군	66.7	16.7	8.3	0.0	0.0	0.0	0.0	0.0	0.0	8.3
	위험군	56.8	22.7	2.3	4.5	2.3	2.3	2.3	4.5	2.3	0.0
계		58.9	21.4	3.6	3.6	1.8	1.8	1.8	3.6	1.8	1.8

3) 고용 및 가구 경제

- 공공부조 수급 집단의 대부분(73.2%, 41명)은 무직인 상태이며, 세부적으로 여성, 중장년 및 노년세대의 무직 비율이 높음.

[표 4-174] 경제활동 : 직업

구분		없음(무직)		있음	
		명	%	명	%
성별	남자	24	70.6	32	29.4
	여자	17	77.3	39	22.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4.6	45	15.4
	방학권	6	66.7	50	33.3
	창동권	11	64.7	45	35.3
	도봉권	13	76.5	43	23.5
연령대	20대	0	0.0	56	100.0
	30대	5	71.4	51	28.6
	40대	2	50.0	54	50.0
	50대	6	66.7	50	33.3
	60대	28	80.0	28	20.0
생애 주기별	청년	6	54.5	50	45.5
	중장년	18	75.0	38	25.0
	노년	17	81.0	39	19.0
은둔 수준	일반군	7	58.3	49	41.7
	위험군	34	77.3	22	22.7
계		41	73.2	15	26.8

*고용형태: 학생, 구직중, 무직, 전업주부, 기타 응답 제외

- 사회적 취약가구 중 69.6%(39명)는 저축을 안(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일반 가구의 85.1%(378명)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임.

[표 4-175] 저축 여부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저축 안(못)함		저축함		저축 안(못)함		저축함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5	73.5	9	26.5	27	12.0	198	88.0
	여자	14	63.6	8	36.4	39	17.8	180	82.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1.5	5	38.5	11	9.7	102	90.3
	방학권	4	44.4	5	55.6	6	5.9	96	94.1
	창동권	12	70.6	5	29.4	33	20.4	129	79.6
	도봉권	15	88.2	2	11.8	16	23.9	51	76.1
연령대	20대	0	0.0	1	100.0	11	15.3	61	84.7
	30대	3	42.9	4	57.1	19	20.9	72	79.1
	40대	3	75.0	1	25.0	9	11.3	71	88.8
	50대	5	55.6	4	44.4	16	16.2	83	83.8
	60대	28	80.0	7	20.0	11	10.8	91	89.2
생애 주기별	청년	6	54.5	5	45.5	34	17.4	161	82.6
	중장년	17	70.8	7	29.2	28	13.0	187	87.0
	노년	16	76.2	5	23.8	4	11.8	30	88.2
은둔 수준	일반군	6	50.0	6	50.0	21	9.3	204	90.7
	위험군	33	75.0	11	25.0	45	20.5	174	79.5
계		39	69.6	17	30.4	66	14.9	378	85.1

- 사회적 취약가구의 다수(94.6%, 53명)가 본인의 생활수준을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가구의 절반 이상(51.8%, 230명)이 본인을 중상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임.

[표 4-176] 전반적 생활수준 인식*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하층		중간층		하층		중간층		상층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2	94.1	2	5.9	115	51.1	103	45.8	7	3.1
	여자	21	95.5	1	4.5	99	45.2	117	53.4	3	1.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	92.3	1	7.7	52	46.0	60	53.1	1	0.9
	방학권	8	88.9	1	11.1	48	47.1	51	50.0	3	2.9
	창동권	16	94.1	1	5.9	87	53.7	74	45.7	1	0.6
	도봉권	17	100.0	0	0.0	27	40.3	35	52.2	5	7.5
	20대	1	100.0	0	0.0	41	56.9	31	43.1	0	0.0
연령대	30대	6	85.7	1	14.3	51	56.0	40	44.0	0	0.0
	40대	4	100.0	0	0.0	43	53.8	36	45.0	1	1.3
	50대	8	88.9	1	11.1	43	43.4	53	53.5	3	3.0
	60대	34	97.1	1	2.9	36	35.3	60	58.8	6	5.9
	청년	10	90.9	1	9.1	111	56.9	84	43.1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23	95.8	1	4.2	94	43.7	114	53.0	7	3.3
	노년	20	95.2	1	4.8	9	26.5	22	64.7	3	8.8
은둔 수준	일반군	12	100.0	0	0.0	71	31.6	147	65.3	7	3.1
	위험군	41	93.2	3	6.8	143	65.3	73	33.3	3	1.4
계		53	94.6	3	5.4	214	48.2	220	49.5	10	2.3

- 향후 미래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취약가구의 78.6%(44명)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표 4-177] 미래 노후 준비 : 경제적 준비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0	88.2	4	11.8	93	41.3	132	58.7
	여자	14	63.6	8	36.4	85	38.8	134	6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9	69.2	4	30.8	42	37.2	71	62.8
	방학권	5	55.6	4	44.4	40	39.2	62	60.8
	창동권	15	88.2	2	11.8	76	46.9	86	53.1
	도봉권	15	88.2	2	11.8	20	29.9	47	70.1
	20대	0	0.0	1	100.0	39	54.2	33	45.8
연령대	30대	3	42.9	4	57.1	42	46.2	49	53.8
	40대	2	50.0	2	50.0	18	22.5	62	77.5
	50대	8	88.9	1	11.1	36	36.4	63	63.6
	60대	31	88.6	4	11.4	43	42.2	59	57.8
	청년	5	45.5	6	54.5	88	45.1	107	54.9
생애 주기별	중장년	22	91.7	2	8.3	80	37.2	135	62.8
	노년	17	81.0	4	19.0	10	29.4	24	70.6
은둔 수준	일반군	9	75.0	3	25.0	63	28.0	162	72.0
	위험군	35	79.5	9	20.5	115	52.5	104	47.5
계		44	78.6	12	21.4	178	40.1	266	59.9

- 향후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역시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1%(37명)로 다수를 차지함.

[표 4-178] 미래 노후 준비 :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구분		취약 가구(n=56)				일반 가구(n=444)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1	61.8	13	38.2	99	44.0	126	56.0
	여자	16	72.7	6	27.3	97	44.3	122	55.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4.6	2	15.4	54	47.8	59	52.2
	방학권	6	66.7	3	33.3	40	39.2	62	60.8
	창동권	9	52.9	8	47.1	77	47.5	85	52.5
	도봉권	11	64.7	6	35.3	25	37.3	42	62.7
연령대	20대	0	0.0	1	100.0	28	38.9	44	61.1
	30대	5	71.4	2	28.6	43	47.3	48	52.7
	40대	2	50.0	2	50.0	29	36.3	51	63.8
	50대	6	66.7	3	33.3	45	45.5	54	54.5
	60대	24	68.6	11	31.4	51	50.0	51	50.0
생애 주기별	청년	6	54.5	5	45.5	83	42.6	112	57.4
	중장년	16	66.7	8	33.3	94	43.7	121	56.3
	노년	15	71.4	6	28.6	19	55.9	15	44.1
은둔 수준	일반군	5	41.7	7	58.3	81	36.0	144	64.0
	위험군	32	72.7	12	27.3	115	52.5	104	47.5
계		37	66.1	19	33.9	196	44.1	248	55.9

4) 주거 및 안전

- 사회적 취약가구의 경우 주거 및 주변환경 안전 측면에서도 일부 상대적 취약성이 발견됨. 일반 가구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과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적 자원(가족, 친지, 친구 등)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지만, 준비한 것이 없다는 응답 역시 28.6%로 낮지 않아 이들의 공적·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됨을 예측할 수 있음.

[표 4-179]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n=56)

구분		주택 보안	사생활 침해	화재 안전	주택 위생	도움 요청	범죄 안전	시설 안전	청결성
성별	남자	2.68	2.35	2.56	2.38	2.50	2.74	2.65	2.79
	여자	2.45	2.18	2.32	2.50	2.55	2.55	2.73	2.6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38	2.15	2.08	2.08	2.54	2.54	2.46	2.62
	방학권	2.56	2.33	2.67	2.67	2.33	2.78	2.78	2.44
	창동권	2.65	2.18	2.65	2.35	2.53	2.82	2.65	2.94
	도봉권	2.71	2.47	2.47	2.65	2.59	2.53	2.82	2.76
연령대	20대	2.00	1.00	2.00	3.00	2.00	3.00	3.00	2.00
	30대	2.29	2.29	2.43	2.14	2.43	2.57	2.29	2.43
	40대	2.75	2.25	2.25	2.25	2.75	2.75	2.75	2.75
	50대	2.67	2.22	2.33	2.33	2.33	2.56	2.56	2.56
	60대	2.63	2.34	2.54	2.51	2.57	2.69	2.77	2.86
생애 주기별	청년	2.36	2.18	2.27	2.27	2.45	2.64	2.45	2.55
	중장년	2.63	2.21	2.50	2.54	2.58	2.71	2.75	2.79
	노년	2.67	2.43	2.52	2.38	2.48	2.62	2.71	2.76
은둔 수준	일반군	2.67	2.25	2.50	2.50	2.58	2.83	2.58	2.83
	위험군	2.57	2.30	2.45	2.41	2.50	2.61	2.70	2.70
계	취약	2.59	2.29	2.46	2.43	2.52	2.66	2.68	2.73
	일반	2.84	2.63	2.67	2.76	2.71	2.60	2.83	2.86

[표 4-180] 위급 상황 시 대비책

(n=56)

구분		주위 사람과 지속적 연락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		1인가구 안심돌봄서비 스 이용		안전장치 설치		준비한 것이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	20.6	4	11.8	5	14.7	3	8.8	15	44.1
	여자	12	54.5	2	9.1	2	9.1	5	22.7	1	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	46.2	2	15.4	2	15.4	0	0.0	3	23.1
	방학권	3	33.3	1	11.1	1	11.1	0	0.0	4	44.4
	창동권	6	35.3	2	11.8	2	11.8	0	0.0	7	41.2
	도봉권	4	23.5	1	5.9	2	11.8	8	47.1	2	11.8
연령대	20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30대	4	57.1	0	0.0	0	0.0	0	0.0	3	42.9
	40대	2	50.0	1	25.0	0	0.0	0	0.0	1	25.0
	50대	5	55.6	0	0.0	0	0.0	0	0.0	4	44.4
	60대	8	22.9	5	14.3	6	17.1	8	22.9	8	22.9
생애 주기별	청년	5	45.5	1	9.1	1	9.1	0	0.0	4	36.4
	중장년	10	41.7	3	12.5	1	4.2	1	4.2	9	37.5
	노년	4	19.0	2	9.5	5	23.8	7	33.3	3	14.3
은둔 수준	일반군	4	33.3	3	25.0	2	16.7	0	0.0	3	25.0
	위험군	15	34.1	3	6.8	5	11.4	8	18.2	13	29.5
계	취약	19	33.9	6	10.7	7	12.5	8	14.3	16	28.6
	일반	203	45.7	93	20.9	56	12.6	15	3.4	77	17.3

5)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비용부담이 53.6%(3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상태가 28.6%(16명), 함께 할 사람의 부재가 8.5%(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1] 여가 시간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n=56)

구분		건강상태		함께 할 사람 없음		마땅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부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 부족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 부족		비용 부담		시간 부족		하기 싫음/귀찮음		어려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0	29.4	4	11.8	0	0.0	1	2.9	-	-	16	47.1	1	2.9	1	2.9	1	2.9
	여자	6	27.3	1	4.5	1	4.5	0	0.0	-	-	14	63.6	0	0.0	0	0.0	0	0.0
거 주 지 권역별	쌍문권	4	30.8	0	0.0	0	0.0	1	7.7	-	-	7	53.8	0	0.0	0	0.0	1	7.7
	방학권	1	11.1	3	33.3	0	0.0	0	0.0	-	-	5	55.6	0	0.0	0	0.0	0	0.0
	창동권	7	41.2	2	11.8	1	5.9	0	0.0	-	-	5	29.4	1	5.9	1	5.9	0	0.0
	도봉권	4	23.5	0	0.0	0	0.0	0	0.0	-	-	13	76.5	0	0.0	0	0.0	0	0.0
연령대	20대	1	100.0	0	0.0	0	0.0	0	0.0	-	-	0	0.0	0	0.0	0	0.0	0	0.0
	30대	1	14.3	2	28.6	1	14.3	0	0.0	-	-	1	14.3	1	14.3	1	14.3	0	0.0
	40대	1	25.0	0	0.0	0	0.0	0	0.0	-	-	3	75.0	0	0.0	0	0.0	0	0.0
	50대	1	11.1	1	11.1	0	0.0	0	0.0	-	-	7	77.8	0	0.0	0	0.0	0	0.0
	60대	12	34.3	2	5.7	0	0.0	1	2.9	-	-	19	54.3	0	0.0	0	0.0	1	2.9
생애 주기별	청년	2	18.2	2	18.2	1	9.1	0	0.0	-	-	4	36.4	1	9.1	1	9.1	0	0.0
	중장년	9	37.5	2	8.3	0	0.0	0	0.0	-	-	13	54.2	0	0.0	0	0.0	0	0.0
	노년	5	23.8	1	4.8	0	0.0	1	4.8	-	-	13	61.9	0	0.0	0	0.0	1	4.8
응답 수준	일반군	4	33.3	2	16.7	0	0.0	0	0.0	-	-	4	33.3	1	8.3	0	0.0	1	8.3
	위험군	12	27.3	3	6.8	1	2.3	1	2.3	-	-	26	59.1	0	0.0	1	2.3	0	0.0
	계	16	28.6	5	8.9	1	1.8	1	1.8	-	-	30	53.6	1	1.8	1	1.8	1	1.8

□ 또한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39.3%(22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친구가 32.1%(18명), 공공·복지기관이 12.5%(7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82]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공공·복지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	5.9	11	32.4	1	2.9	6	17.6	1	2.9	1	2.9	12	35.3
	여자	2	9.1	7	31.8	1	4.5	1	4.5	0	0.0	1	4.5	10	45.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	7.7	6	46.2	0	0.0	1	7.7	0	0.0	0	0.0	5	38.5
	방학권	1	11.1	2	22.2	1	11.1	0	0.0	1	11.1	1	11.1	3	33.3
	창동권	1	5.9	3	17.6	1	5.9	5	29.4	0	0.0	1	5.9	6	35.3
	도봉권	1	5.9	7	41.2	0	0.0	1	5.9	0	0.0	0	0.0	8	47.1
연령대	2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30대	0	0.0	4	57.1	0	0.0	1	14.3	0	0.0	0	0.0	2	28.6
	40대	1	25.0	2	50.0	0	0.0	0	0.0	0	0.0	0	0.0	1	25.0
	50대	0	0.0	1	11.1	2	22.2	0	0.0	0	0.0	0	0.0	6	66.7
	60대	3	8.6	11	31.4	0	0.0	6	17.1	1	2.9	1	2.9	13	37.1
생애 주기별	청년	0	0.0	6	54.5	0	0.0	1	9.1	0	0.0	1	9.1	3	27.3
	중장년	3	12.5	3	12.5	2	8.3	2	8.3	0	0.0	1	4.2	13	54.2
	노년	1	4.8	9	42.9	0	0.0	4	19.0	1	4.8	0	0.0	6	28.6
은둔 수준	일반군	1	8.3	5	41.7	0	0.0	3	25.0	0	0.0	1	8.3	2	16.7
	위험군	3	6.8	13	29.5	2	4.5	4	9.1	1	2.3	1	2.3	20	45.5
계		4	7.1	18	32.1	2	3.6	7	12.5	1	1.8	2	3.6	22	39.3

(n=56)

6) 정책 인식

-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도봉구의 지원 정책으로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큰 일반군에 비해 사회적 취약 집단은 건강관리 지원 (30.4%)과 주거안정 지원(26.8%)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183]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도봉구의 지원 정책 : 1순위

(n=56)

구분		고용 지원 (일자리, 취업·창업지원 등)	건강 관리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사회관 계망 지원 (공간, 소모임 등)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정보공유 강화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치안, 방범 등 안전 강화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인식 개선	응급 상황 대응 정책
		%	%	%	%	%	%	%	%	%	%	%	%
성별	남자	26.5	29.4	11.8	17.6	0.0	2.9	-	-	0.0	8.8	2.9	0.0
	여자	13.6	31.8	0.0	40.9	4.5	0.0	-	-	4.5	0.0	0.0	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5.4	46.2	0.0	15.4	7.7	0.0	-	-	0.0	0.0	7.7	7.7
	방학권	33.3	22.2	0.0	22.2	0.0	11.1	-	-	0.0	11.1	0.0	0.0
	창동권	29.4	11.8	23.5	29.4	0.0	0.0	-	-	0.0	5.9	0.0	0.0
	도봉권	11.8	41.2	0.0	35.3	0.0	0.0	-	-	5.9	5.9	0.0	0.0
	20대	100.0	0.0	0.0	0.0	0.0	0.0	-	-	0.0	0.0	0.0	0.0
연령대	30대	14.3	14.3	0.0	71.4	0.0	0.0	-	-	0.0	0.0	0.0	0.0
	40대	50.0	25.0	0.0	0.0	0.0	0.0	-	-	25.0	0.0	0.0	0.0
	50대	22.2	33.3	0.0	22.2	0.0	0.0	-	-	0.0	11.1	0.0	11.1
	60대	17.1	34.3	11.4	22.9	2.9	2.9	-	-	0.0	5.7	2.9	0.0
	청년	36.4	9.1	0.0	45.5	0.0	0.0	-	-	9.1	0.0	0.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25.0	29.2	8.3	16.7	4.2	0.0	-	-	0.0	8.3	4.2	4.2
	노년	9.5	42.9	9.5	28.6	0.0	4.8	-	-	0.0	4.8	0.0	0.0
은둔 수준	일반군	41.7	8.3	16.7	25.0	8.3	0.0	-	-	0.0	0.0	0.0	0.0
	위험군	15.9	36.4	4.5	27.3	0.0	2.3	-	-	2.3	6.8	2.3	2.3
계	취약	21.4	30.4	7.1	26.8	1.8	1.8	-	-	1.8	5.4	1.8	1.8
	일반	25.0	14.9	16.9	18.7	6.3	5.6	2.9	3.8	3.6	0.7	0.5	1.1

□ 세부적으로, 경제분야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가구의 경우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이 32.1%(1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후 준비교육 및 상담이 23.2%(13명)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는 생계비 지원과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크게 나타남.

[표 4-184]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경제 분야 지원 정책 : 1순위

(n=56)

구분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격증 취득, 교육 비용 지원		지자체 일자리 창출		각종 세제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불이익 개선		재무상담 및 컨설팅		노후 준비교육 및 상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	14.7	9	26.5	1	2.9	1	2.9	0	0.0	5	14.7	5	14.7	1	2.9	7	20.6
	여자	2	9.1	9	40.9	1	4.5	0	0.0	2	9.1	0	0.0	2	9.1	0	0.0	6	27.3
	쌍문권	3	23.1	1	7.7	0	0.0	0	0.0	1	7.7	1	7.7	4	30.8	0	0.0	3	23.1
거주지 권역별	방학권	1	11.1	3	33.3	2	22.2	0	0.0	0	0.0	2	22.2	0	0.0	0	0.0	1	11.1
	창동권	2	11.8	5	29.4	0	0.0	1	5.9	0	0.0	1	5.9	2	11.8	1	5.9	5	29.4
	도봉권	1	5.9	9	52.9	0	0.0	0	0.0	1	5.9	1	5.9	1	5.9	0	0.0	4	23.5
연령대	20대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대	0	0.0	1	14.3	1	14.3	0	0.0	1	14.3	1	14.3	1	14.3	0	0.0	2	28.6
	40대	2	5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50대	0	0.0	4	44.4	0	0.0	0	0.0	0	0.0	2	22.2	1	11.1	0	0.0	2	22.2
	60대	4	11.4	13	37.1	1	2.9	0	0.0	0	0.0	2	5.7	5	14.3	1	2.9	9	25.7
	청년	2	18.2	1	9.1	1	9.1	1	9.1	2	18.2	1	9.1	1	9.1	0	0.0	2	18.2
생애 주기별	중장년	2	8.3	11	45.8	0	0.0	0	0.0	0	0.0	3	12.5	4	16.7	1	4.2	3	12.5
	노년	3	14.3	6	28.6	1	4.8	0	0.0	0	0.0	1	4.8	2	9.5	0	0.0	8	38.1
	일반군	4	33.3	3	25.0	0	0.0	0	0.0	0	0.0	1	8.3	1	8.3	1	8.3	2	16.7
은둔 수준	위험군	3	6.8	15	34.1	2	4.5	1	2.3	2	4.5	4	9.1	6	13.6	0	0.0	11	25.0
	취약	7	12.5	18	32.1	2	3.6	1	1.8	2	3.6	5	8.9	7	12.5	1	1.8	13	23.2
계	일반	94	21.2	99	22.3	81	18.2	41	9.2	53	11.9	20	4.5	34	7.7	9	2.0	13	2.9

□ 주거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이 57.1%(3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28.6%, 16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85]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 1순위

(n=56)

구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1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공급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복합서비스 시설 마련		여성전용 원룸시설 정보 제공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	55.9	8	23.5	4	11.8	3	8.8	-	-	-
	여자	13	59.1	8	36.4	0	0.0	1	4.5	-	-	-
거주지 권역별	생문권	8	61.5	2	15.4	1	7.7	2	15.4	-	-	-
	방학권	3	33.3	2	22.2	2	22.2	2	22.2	-	-	-
	창동권	12	70.6	4	23.5	1	5.9	0	0.0	-	-	-
	도봉권	9	52.9	8	47.1	0	0.0	0	0.0	-	-	-
	20대	1	100.0	0	0.0	0	0.0	0	0.0	-	-	-
연령대	30대	3	42.9	3	42.9	1	14.3	0	0.0	-	-	-
	40대	1	25.0	2	50.0	0	0.0	1	25.0	-	-	-
	50대	7	77.8	1	11.1	0	0.0	1	11.1	-	-	-
	60대	20	57.1	10	28.6	3	8.6	2	5.7	-	-	-
	청년	5	45.5	5	45.5	1	9.1	0	0.0	-	-	-
생애 주기별	중장년	18	75.0	2	8.3	2	8.3	2	8.3	-	-	-
	노년	9	42.9	9	42.9	1	4.8	2	9.5	-	-	-
	일반군	8	66.7	2	16.7	1	8.3	1	8.3	-	-	-
응답 수준	위험군	24	54.5	14	31.8	3	6.8	3	6.8	-	-	-
	취약	32	57.1	16	28.6	4	7.1	4	7.1	-	-	-
계	일반	183	41.2	126	28.4	71	16.0	57	12.8	6	1.4	1
												0.2

□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책으로 사회적 취약가구는 주택 내부 환경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는 응답이 33.9%(19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로는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이 28.6%(16명)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 가구 역시 주택 내·외부 환경 개선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 가구 청년의
 경우는 주택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사회적 취약가구의 경우는 주택 내부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1순위로 나타남.

[표 4-186]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책 : 1순위

(n=56)

구분		주택 내부환경 개선		주택 주변 환경 개선		위급 상황 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안심도우미 서비스 제공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프로그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0	29.4	8	23.5	7	20.6	0	0.0	1	2.9	7	20.6	1	2.9
	여자	9	40.9	8	36.4	2	9.1	1	4.5	0	0.0	1	4.5	1	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	53.8	0	0.0	1	7.7	0	0.0	0	0.0	3	23.1	2	15.4
	방학권	2	22.2	4	44.4	2	22.2	0	0.0	0	0.0	1	11.1	0	0.0
	창동권	7	41.2	3	17.6	4	23.5	0	0.0	1	5.9	2	11.8	0	0.0
	도봉권	3	17.6	9	52.9	2	11.8	1	5.9	0	0.0	2	11.8	0	0.0
	20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연령대	30대	1	14.3	2	28.6	2	28.6	0	0.0	0	0.0	2	28.6	0	0.0
	40대	2	50.0	1	25.0	0	0.0	0	0.0	0	0.0	0	0.0	1	25.0
	50대	4	44.4	2	22.2	2	22.2	0	0.0	1	11.1	0	0.0	0	0.0
	60대	12	34.3	11	31.4	4	11.4	1	2.9	0	0.0	6	17.1	1	2.9
	청년	3	27.3	3	27.3	3	27.3	0	0.0	0	0.0	2	18.2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9	37.5	5	20.8	4	16.7	0	0.0	1	4.2	3	12.5	2	8.3
	노년	7	33.3	8	38.1	2	9.5	1	4.8	0	0.0	3	14.3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6	50.0	2	16.7	4	33.3	0	0.0	0	0.0	0	0.0	0	0.0
	위험군	13	29.5	14	31.8	5	11.4	1	2.3	1	2.3	8	18.2	2	4.5
계	취약	19	33.9	16	28.6	9	16.1	1	1.8	1	1.8	8	14.3	2	3.6
	일반	129	29.1	167	37.6	50	11.3	60	13.5	17	3.8	15	3.4	6	1.4

□ 건강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운동 등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원한다는 응답이 26.8%(15명)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23.2%(13명),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19.6%(1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87]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건강지원 정책 : 1순위

구분		운동 등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의사소통방법, 대인관계기술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 내 운동 공간 및 시설 제공		규칙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요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체중관리, 금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연령별 변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자	29.4	3	8.8	0	0.0	11	32.4	1	2.9	2	5.9	4	11.8	3	8.8	-	-
성별	여자	5	22.7	8	36.4	2	9.1	2	9.1	3	13.6	1	4.5	0	0.0	1	4.5	-	-
	쌍문권	7	53.8	0	0.0	1	7.7	2	15.4	1	7.7	1	7.7	0	0.0	1	7.7	-	-
거주지 권역별	방학권	3	33.3	1	11.1	0	0.0	3	33.3	1	11.1	0	0.0	1	11.1	0	0.0	-	-
	창동권	4	23.5	1	5.9	0	0.0	4	23.5	2	11.8	2	11.8	2	11.8	2	11.8	-	-
	도봉권	1	5.9	9	52.9	1	5.9	4	23.5	0	0.0	0	0.0	1	5.9	1	5.9	-	-
	20대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
연령대	30대	3	42.9	0	0.0	0	0.0	0	0.0	1	14.3	1	14.3	2	28.6	0	0.0	-	-
	40대	1	25.0	1	25.0	1	25.0	0	0.0	0	0.0	1	25.0	0	0.0	0	0.0	-	-
	50대	1	11.1	1	11.1	0	0.0	5	55.6	1	11.1	0	0.0	0	0.0	1	11.1	-	-
	60대	9	25.7	9	25.7	1	2.9	8	22.9	2	5.7	1	2.9	2	5.7	3	8.6	-	-
	청년	5	45.5	1	9.1	0	0.0	0	0.0	1	9.1	2	18.2	2	18.2	0	0.0	-	-
생애 주기별	중장년	4	16.7	4	16.7	1	4.2	7	29.2	3	12.5	1	4.2	0	0.0	4	16.7	-	-
	노년	6	28.6	6	28.6	1	4.8	6	28.6	0	0.0	0	0.0	2	9.5	0	0.0	-	-
	일반군	7	58.3	1	8.3	0	0.0	3	25.0	0	0.0	0	0.0	1	8.3	0	0.0	-	-
은둔 수준	위험군	8	18.2	10	22.7	2	4.5	10	22.7	4	9.1	3	6.8	3	6.8	4	9.1	-	-
	취약	15	26.8	11	19.6	2	3.6	13	23.2	4	7.1	3	5.4	4	7.1	4	7.1	-	-
계		140	31.5	60	13.5	47	10.6	59	13.3	59	13.3	27	6.1	31	7.0	13	2.9	8	1.8

□ 마지막으로,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6%(11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이 16.1%(9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정보 공유가 14.3%(8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일반 가구의 경우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88]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정책 : 1순위

(n=56)

구분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품앗이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기술 및 독립생활 교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보 공유		자원봉사 활동		명절, 생일 기념 행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	20.6	4	11.8	6	17.6	3	8.8	0	0.0	3	8.8	6	17.6	1	2.9	4	11.8
	여자	2	9.1	2	9.1	5	22.7	2	9.1	2	9.1	4	18.2	2	9.1	2	9.1	1	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0.8	0	0.0	4	30.8	1	7.7	0	0.0	3	23.1	0	0.0	0	0.0	1	7.7
	방학권	1	11.1	2	22.2	1	11.1	1	11.1	0	0.0	2	22.2	1	11.1	0	0.0	1	11.1
	창동권	4	23.5	0	0.0	4	23.5	1	5.9	0	0.0	1	5.9	5	29.4	1	5.9	1	5.9
	도봉권	0	0.0	4	23.5	2	11.8	2	11.8	2	11.8	1	5.9	2	11.8	2	11.8	2	11.8
연령대	20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대	2	28.6	0	0.0	0	0.0	0	0.0	0	0.0	2	28.6	3	42.9	0	0.0	0	0.0
	40대	1	25.0	0	0.0	1	25.0	0	0.0	0	0.0	1	25.0	1	25.0	0	0.0	0	0.0
	50대	1	11.1	2	22.2	1	11.1	2	22.2	0	0.0	3	33.3	0	0.0	0	0.0	0	0.0
	60대	5	14.3	4	11.4	8	22.9	3	8.6	2	5.7	1	2.9	4	11.4	3	8.6	5	14.3
	청년	3	27.3	0	0.0	2	18.2	0	0.0	0	0.0	2	18.2	4	36.4	0	0.0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3	12.5	2	8.3	5	20.8	2	8.3	1	4.2	5	20.8	2	8.3	2	8.3	2	8.3
	노년	3	14.3	4	19.0	4	19.0	3	14.3	1	4.8	0	0.0	2	9.5	1	4.8	3	14.3
	일반군	3	25.0	1	8.3	4	33.3	0	0.0	0	0.0	1	8.3	3	25.0	0	0.0	0	0.0
은둔 수준	위험군	6	13.6	5	11.4	7	15.9	5	11.4	2	4.5	6	13.6	5	11.4	3	6.8	5	11.4
계	취약	9	16.1	6	10.7	11	19.6	5	8.9	2	3.6	7	12.5	8	14.3	3	5.4	5	8.9
	일반	81	18.2	100	22.5	93	20.9	52	11.7	30	6.8	47	10.6	30	6.8	2	0.5	9	2.0

제 3 절 소결

- 본 조사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구민의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도봉구 내 1인가구 정책의 수립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도봉구 내 1인가구의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일반 특성 및 주요 사회보장 영역의 욕구, 인식, 실태를 확인하였고, 주요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도봉구 1인가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주요 결과 : 복지 영역별 문제와 욕구

가. 도봉구 1인가구의 특성

- 도봉구 1인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고학력(대졸 이상), 중장년, 미혼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민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 삶의 수준 및 경제적 수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고민이 확인됨. 이에 대한 다각적 정책적 고민이 요구됨.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5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의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위험 집단의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1인가구로써의 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긍정적인 편이며, 향후 1인가구를 유지 희망 비율 역시 높은 편임. 또한 1인가구로써 지역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지역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남.

나. 건강 및 긴급 돌봄

- 도봉구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의 보유 비율도 과반 이하로 나타남. 건강 관리 측면에서 역시 정기적인 건강검진, 금주 및 운동과 주기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스트레스, 무료함 등의 경험 비율이 높아져 있어 전반적으로 신체·심리적 불안 및 위기감을 낮춰줄 방안이 요구됨. 실제로 건강교육 및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심리상담을 겸한 복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정책적 요

구가 1승위로 확인되었음.

- 응답자들은 고독사에 대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독사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봉구 1인가구의 경우, 위급 상황과 같은 긴급 돌봄 필요 시 준비 및 대처방안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 역시 가족, 친지 등의 사적 지원 체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공적 지원 체계의 한계가 나타남.
- 특히, 도봉구 내 1인가구를 위한 우선적 정책에 대해 고용지원 정책과 함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1인가구의 건강 및 돌봄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됨.

다. 고용 및 가구 경제

-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부분(85.4%)은 고용 상태였으며,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들의 근로 형태 역시 정규직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 재정 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거의 과반수(55.6%)는 향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고, 미래 본인의 노후 상황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52.0%)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노후에 대한 불안과 노년기 빈곤으로의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 역시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 사회적 고립 집단의 노후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혹은 고용 정책 마련에 있어서 재정관리,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 진입 예방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논의가 요구됨.
- 도봉구 1인가구에게 필요한 우선적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 제공과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라. 주거 및 안전

- 도봉구 내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전반적인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느끼는 사생활 침해, 긴급 상황 시 대처,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봉구 1인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우선적 정책에 대해 주택 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됨.
- 또한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우선적 정책에 대해서는 CCTV와 가로등 증설 등 주택 주변 환경 개선과 주택 출입구, 방범창 등 주택 내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주거 환경의 내외적 개선과 안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마.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 도봉구 거주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적 교류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고령이면서 사회적 은둔 및 고립 위험 집단은 상대적으로 사적 교류의 비율은 낮고 공적 교류의 비율은 높음.
- 또한 다양한 어려움 혹은 문제 상황 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대부분은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류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복지 공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 특히,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정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 결과, 고립 위험군이 절반 이상(52.6%)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사적·공적 지원 정책 확장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요구됨.
- 1인가구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위한 우선적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과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련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사회활동 기회 창출 및 공적 지지체계의 강화 정책에 대한 고려 논의가 필요함.

바. 정책 인식

- 1인가구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의 창구로 도봉구 관련 소셜 서비스 및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지원 및 홍보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의 확대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 제공 창구의 개발이 요구됨.
- 도봉구민들의 1인가구를 위한 우선적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 주거안정,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생계비 지원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주요 요구로 나타났고,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주택 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 주거 환경의 내외

적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었음.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세부 정책적 다각화가 요구됨.

2. 주요 결과 : 주요 정책 대상의 욕구

- 앞서 논의한 내용과 더불어 정책에서는 대상별 욕구 파악이 중요함. 주요 영역별 중점 정책 대상이 상이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성별, 거주 권역별, 연령(생애주기)별, 은둔 수준에 따른 각 영역별 특징을 살펴봄. 이를 바탕으로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세부 정책적 다각화가 논의될 수 있음.

가. 여성과 노인

- 여성 및 노인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언급되어 있음. 도봉구 내에서도 여성, 노인은 전 영역에 걸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민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 삶의 수준 및 1인가구로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 노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건강 및 긴급돌봄에 있어서 여성과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비교 그룹(남성, 청년 및 중장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여성이 46.0%, 노인이 69.1%로 상대적으로 비교 그룹 대비 높게 나타남. 건강 관리 측면에서 역시 정기적인 건강검진, 운동과 주기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서 그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스트레스, 무료함 등의 경험 비율이 높아져 있어 여성, 노인, 은둔 위험 집단에 대한 신체·심리적 불안 및 위기감을 낮춰줄 방안이 요구됨.
- 고용 및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의 어려움이 두드러짐. 노인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형태(정규직/상용직) 비율이 낮음. 또한 공적 수급 비율이 높고,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으로의 진입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임. 노년기 빈곤에 대한 예방적 대응 및 경제적 지원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특히,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한 우선적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연령별 욕구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20-30대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이, 40대는 직업 훈련 교육 제공이, 50-60대는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연령별/생애주기별 정책 로드맵 설정이 요구됨.

- 도봉구 내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주거 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느끼는 사생활 침해, 긴급 상황 시 대처,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에 대한 주거 및 안전에 대한 안심 서비스, 안전 정책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봉구 거주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적 교류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노인의 경우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공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적 대상 특성으로 파악됨. 한편, 도봉구 거주 1인 여성 및 노인 가구는 타 그룹과는 다르게 사회적 지지체계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적 지원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사회적 고립과 은둔

1)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 도봉구 1인가구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정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은둔 위험군이 절반 이상(52.6%)으로 나타나, 도봉구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관련 대응의 정책적 개입과 고민이 요구됨.
- 도봉구 사회적 은둔 위험군의 경우, 건강 및 긴급돌봄, 고용 및 경제, 주거 및 안전,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됨.
- 건강 및 긴급돌봄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우울감 및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일반군에 비해 높았음. 특히, 자살 생각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59.6%)이 한 번 이상은 고려해보았다고 응답하였고, 자주 혹은 거의 매일 생각한다는 응답 역시 20.2%로 적지 않아 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은둔 위험군이 무직인 경우가 일반군의 3배가량 많았고,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채가 있는 비율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님. 또한 사회적 은둔 위험군의 61.6%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대부분(70%)은 본인의 생활 수준을 하층이라 인식하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역시 일반군(69.6%)과 사회적 은둔 위험군(43.0%)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준비 역시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후관리 및 재정 관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주거 및 주변환경 안전 측면에서 일부 상대적 취약성이 발견됨. 일반군에 비해 사생활 침해, 긴급 상황 시 대처,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역시 주택 외부의 주변 환경 개선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낮은 사적·외부 교류의 특성을 지님. 다만, 노인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공적 교류가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적 대상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여가 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하여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큰 일반군에 비해 사회적 은둔 위험 집단은 주거안정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남.

2) 1인가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 도봉구는 1인 청년 가구의 고립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이에, 고립 및 은둔 위험이 높은 청년(“19세 이상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정책적 욕구를 살펴봄.
- 고립 및 은둔 위험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정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39.5%가 청년이었으며, 이는 중장년(49.4%)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지역별 분포가 특징적이었는데, 창동권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분포 비율(55.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역적 취약성이 나타났으나, 특히 우울감 및 불안감과 자살 생각의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아 지역 내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노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한편, 창동권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다르게 위급상황 발생 시 공적 자원(공공기관, 관련 서비스 등)을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가장 높고, 실제적인 교류(대면, 비대면) 빈도 역시 낮게 나타나 지역주민의 공적 자원 활용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 홍보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도봉구 사회적 은둔 위험군의 경우, 건강 및 긴급돌봄, 고용 및 경제, 주거 및 안전,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년의 경우 지역사회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선제적 대응 노력이 요구됨.
- 건강 및 긴급돌봄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과 비교하여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나쁘다는 응답이 일반 청년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경우는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비율이 일반 청년 집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남. 특히, 자살 생각의 경우는 일반 청년 가구보다 약 2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고민이 필요함.
- 고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인 의존 비율이 일반 청년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생활비 해결에 있어서도 자립(본인 수입+모아둔 돈)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일반 청년 가구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님. 또한 사회적 은둔 위험군의 61.6%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대부분(75%)은 본인의 생활수준을 하층이라 인식하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분야의 정책적 요구 역시 일반 청년가구의 경우는 고용 정보에 대한 획득이 우선적 요구사항이었다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제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적 훈련 정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가구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역시 일반군(67.6%)과 사회적 은둔 위험군(42.3%)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준비 역시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후관리 및 재정 관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에서도 주거 및 주변환경 안전 측면에서 일부 상대적 취약성이 발견됨. 일반 청년가구에 비해 주택보안, 사생활 침해, 긴급 상황 시 대처,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 인식이 높았고, 주택 및 주변 지역의 위생 및 청결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역시 주택 내·외부의 주변 환경 개선 응답이 가장 많았음. 다만, 일반 가구 청년의 경우는 주택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는 주택 외부(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1순위로 나타남.

-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낮은 사적·외부 교류의 특성을 지님. 위급 상황 발생 시에도 사적 자원(가족, 친지, 친구 등)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지만, 일반 청년(60.8%)과 비교하여 차이가 큼. 다만,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관련 서비스 활용 등의 공적 교류가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적 대상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여가 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비용부담(37.3%)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한 일반 가구 청년과 달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청년 가구의 경우는 함께 할 사람의 부재(22.1%)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이들의 경우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준비 노력(58.7%)에 있어서도 일반 청년가구(87.3%)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혹은 지지체계 관리 지원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하여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큰 일반군에 비해 사회적 은둔 위험 집단은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다. 사회적 취약계층

-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적수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영역별 욕구를 살펴봄. 응답자의 절반 이상(62.5%)은 60대 이상의 노인이었고, 공적수급 대상자의 78.6%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 개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1인가구로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 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경제/근로 상태 만족도는 평균 2점 미만으로 이들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일반군(2.4점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적 수급 대상자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일반 가구에 비해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회복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임.
- 먼저, 건강 및 긴급돌봄 측면에서 취약집단의 경우, 신체적 건강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울감 및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일반군에 비해 높았음. 이들은 건강

에 대한 대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가구로서 가장 큰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 상황 시의 대처(58.9%)’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건강지원 정책 역시도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26.8%) 다음으로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23.2%)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적부조 수급 집단의 대부분(73.2%)은 무직인 상태이며,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들의 대부분(94.6%)은 본인의 생활수준을 하층이라 인식하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역시 일반 가구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준비 역시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후관리 및 재정 관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이들이 원하는 1인가구를 위한 경제 지원 정책으로는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 지원(32.1%)과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23.2%)으로 나타나 앞서 노후 관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적부조 수급 집단의 경우, 주거 및 주변환경 안전 측면에서 일부 상대적 취약성이 발견됨. 일반군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과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주택보안, 사생활 침해, 주택 위생상태, 긴급 상황 시 대처,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역시 주택 외부의 주변 환경 개선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외에 일반 가구에 비해 위급 상황 시 사회적 보호 장치 제공(16.1%)과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14.3%)에 대한 요구도 높게 확인됨.
-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의 경우 낮은 사적·외부 교류의 특성을 지님. 여가 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하여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큰 일반군에 비해 사회적 취약 집단은 건강관리 지원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남.

라. 지역별 편차

- 권역별 주요 정책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쌍문권/방학권/창동권/도봉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실태를 분석함. 우선, 1인가구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쌍문권이 가장 높았으며, 도봉권의 경우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도봉권 지역의 건강 및 긴급돌봄 영역에서의 타 지역과의 상이함이 두드러짐. 특히, 우울감 및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어려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가령, 우울감 지속이나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19%에 그쳐 도봉권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타 지역권에 비해 상대적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 19 이후 우울 및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한 비율 역시 타 지역은 20%대로 보고되는 반면에 도봉권 같은 경우 5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창동권의 경우는 자살 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 이상(5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지역 차원별 건강 정책 개입 및 예상치 못한 재난 시 위기 대응 논의가 요구됨. 실제적으로, 도봉권의 경우 타 지역과는 상이하게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건강 지원 정책으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지원 요구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고용 및 가구경제 영역에서 역시 도봉권 지역의 취약성이 확인됨. 도봉권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거나, 상용직인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고, 가구 부채 보유 역시 70.2%로 4개 권역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공적 수급 가구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많게 나타나 지역적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창동권 역시 도봉권 다음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이나 가구 부채 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봉구 내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주거 환경 만족도는 모든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안전 수준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방학권 거주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지역 세부적으로는 쌍문권은 주택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기타 방학권, 창동권, 도봉권은 주택 외부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역시 전반적으로 사적 교류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양한 어려움 혹은 문제 상황 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대부분은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창동권의 경우는 대부분(80.4%)의 지역민이 공적 교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위기 및 문제 상황 시 공적 도움 비율 역시 낮은 편으로 나타남. 지역별 복지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다양한 어려움 혹은 문제 상황 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대부분은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류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복지 공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 특히,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정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한 결과, 고립 위험군이 절반 이상(52.6%)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사적·공적 지원 정책 확장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우선적 관심 정책의 상이함이 발견되었는데, 쌍문권의 경우는 고용 지원에 대한 정책의 요구가 가장 많았고, 방학권은 문화·여가 활동지원에 대한 요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창동권은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봉권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마. 기타

- 도봉구 1인가구 조사 대상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5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 독거 형태는 4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년 세대 비율이 높음. 또한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은둔 위험 집단의 비율 역시 높아 중장년 세대와 사회적 은둔 및 고립 위험군에 대한 영역별 예방 및 치료적 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세대 중 남성에 대한 정책 대상 고민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중장년 남성은 특히,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할 때 상대적으로 대처의 어려움을 느끼며, 영양(식사), 음주 등 생활상 건강 실천 및 관리가 어려움의 정도가 많음. 또한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원하는 정책 역시 고용지원과 건강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하여 연령·세대별 차이가 나타남. 즉,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경우는 고용 및 경제와 관련한 정책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의 경우는 건강관리와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남.

05

도봉구 1인가구 질적 연구

- 제 1 절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 FGI
- 제 2 절 도봉구 1인가구 지역 전문가 FGD
- 제 3 절 소결 : 결과 통합 분석

제 5 장 도봉구 1인가구 질적 연구

제 1 절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 FGI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도봉구 거주 1인가구의 개인 경험에 기반한 1인가구 이슈, 욕구, 각 영역별 정책 수요, 도봉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FGI(Focus Group Interview)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주거취약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함.
- FGI는 2023년 9월 8일에 청년층 1인가구 1그룹, 주거취약층(고시원 거주) 1인, 9월 14일에 중장년층 1그룹, 노년층 1그룹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됨.

[표 5-1] 1인가구 당사자 FGI 개요

구분	세부 설계			
	청년층 1인가구 FGI	중장년층 1인가구 FGI	노년층 1인가구 FGI	주거취약층 FGI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20~39세) 1인가구 4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40~59세) 1인가구 4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년 (60세 이상) 1인가구 4인	도봉구 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1인
방법	오프라인으로 FGI를 진행함			
기간	2023년 9월, 1회당 약 60분~90분			
내용	도봉구 거주 1인가구의 개인 경험에 기반한 1인가구 이슈, 연령, 성별,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1인가구의 욕구, 각 영역별 정책 수요(건강, 안전, 주거, 고립 등), 도봉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사업 아이디어,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			

□ FGI에 참여한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5-2]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	도봉구 거주 연차
청년층 그룹	참여자 1	남	37세	10년
	참여자 2	여	27세	6년
	참여자 3	여	31세	4년
	참여자 4	남	37세	8년
중장년층 그룹	참여자 5	여	40세	30년 (1인가구 1년)
	참여자 6	여	59세	10년
	참여자 7	여	54세	1년
	참여자 8	여	43세	2년6개월
노년층 그룹	참여자 9	남	75세	20년
	참여자 10	여	73세	13년
	참여자 11	여	79세	30년
	참여자 12	남	69세	2년
주거취약층 (고시원 거주)	참여자 13	남	48세	4년

2. 주요 결과

□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수렴하고 중복되는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청년층 1인가구의 욕구 및 정책 제안

□ 청년층 1인가구는 학교, 직장 등을 이유로 도봉구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이직 등 삶의 변화 과정에서 도봉구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오래 거주할 만한 곳인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음. 그 이유에는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의 부족 문제와 교통편의 불편함 등이 있었음. 생활 전반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위치적인 문제라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도봉구에 왔을 때 사실 서울에서도 너무 멀어서 사실 친구를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여기 주변에 뭔가 맛집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다고 느꼈고

제가 뭔가 여기에서 삶을 꾸려나가기에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배우고 싶은 게 있거나 해도 그걸 배우는 장소나 그런 게 너무 없다고 느꼈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핑크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도봉구에는 그 게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뭔가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청년층그룹 참여자2)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봉구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그냥 여유가 좀 더 변화가로 나가게 되는. 조용하게 혼자 사는 건 되게 좋은데, 동네가 시끄럽지 않고 밤에도 조용하고. 그런 게 맞는 사람한테는 맞을지 모르겠는데.(청년층그룹 참여자4)

□ 지역사회 내 안전 문제는 1인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1인가구 청년들은 늦은 시간 귀가할 때 혼자 이동하거나, 집에 귀가한 이후에 혼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더 취약한 면이 있음. 어두운 거리, CCTV 부족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안전 문제가 보완되었으면 함. 더불어 1인가구 안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여 행정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도봉구에 처음 왔을 때 남자친구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고 경찰도 부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도봉구 1인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그게 경찰에 신고되어 있었던 기록도 있어야 되고 가서 직접 서류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청년층그룹 참여자3)

저는 도봉구가 되게 좀 위험해 보여요. 요즘도 그냥 어두컴컴하고 한 8시만 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좀 환경적으로 요즘 들어 점점 동네가 무서워진다고 느껴져요. 제 느낌은 그냥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런 느낌. 근데도 이 동네는 여전히 되게 어두워요. 동네가 밤만 되면 밤에 조명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제가 보기에 cctv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청년층그룹 참여자4)

□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식재료 나눔, 반찬 만들기, 강연, 원데이 클래스, 행사나 축제 등)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하면 좋겠음.

1인가구다 보니까 오히려 집이 노출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 없이 우리 술이나 마셔요, 같이 뭐 해요, 심심한데 만나요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도봉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걸 한다면 어떤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중략)...반찬 만들기 이런 거 원데이 클래스에서 같이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청년층그룹 참여자2)

부스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때 청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로 해줘야 되는데 주로 애들이나 그리고 여기 노년층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려도 이름도 모를 트로트 가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행사에 우리도 관심 있어서 가지만 이미 그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먹거리 장터 같은 것도 있어서 사 먹고 술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청년들도 거기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이제 할 텐데 거의 어르신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없는데 그마저도 이제 부스 같은 것도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아니고.(청년층그룹 참여자3)

□ 도봉구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린 축제(우이천 벚꽃 축제, 가을 창포 축제 등)를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통해 도봉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함. 더불어, 축제 또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타 구와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면 함.

저는 도봉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꼈던 게 우이천 벚꽃 축제 올해 처음 갔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는 여의도보다 여기가 훨씬 예쁘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을에 창포원도 정말 아름답고 거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정보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고.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다 제가 발품 팔아 찾아봐야 되고 그런 좋은 것 콘텐츠들도 많은데 제가 뭔가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직장 발령 나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면 또 도봉구에 대한 사랑이. 천도 되게 좋고 중랑천 산책도 엄청 좋고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 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청년층그룹 참여자2)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에 이게 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할 때 포천시 예산이나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들니까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를 구해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양주 동두천이랑 이렇게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의정부까지. 도봉구도 굳이 도봉구 혼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원구나 강북구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은 구와 컨소시엄이나 MOU 맺어서 세 구가 이제 같이 통합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청년층그룹 참여자1)

나. 중장년층 1인가구의 욕구 및 정책 제안

□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채널이 필요함. 특히, 1인 여성 가구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가 안전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적 채널에서 네트워킹을 시도하기가 어려움. 공적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었으면 함.

맨 처음에 이사 올 때도 솔직히 저는 여기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1인가구 세대를 좀 알고 싶어 갖고 되게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해서 막 지역 카페도 가입을 했는데...(중략)...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을 위한 1인가구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킹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왜냐하면 1인가구가 가장 조금 제가 가장 필요하고 그런 게 뭐냐면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맘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1인가구는 그런 채널이 없는 데다가 서로 그게 제일 무서운 게 1인가구는 그런 네트워킹을 하기가 나서기 무서운 게 요새 이런 범죄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노출하기가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채널이나 이런 장을 이런 공공의 어떤 안전한 장소에서 이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중장년층 참여자8)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1인가구라는 것을 노출한다는 위험을 감당한다는 게. 누가 혼자 살아요 알려주고 싶겠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오픈 안 하려고 하고 (중장년층 참여자7)

종로구 이런 데 보면은 비슷한 1인가구 서로 취미나 연령대가 비슷하고 이런 1인가구를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주거나 멘토 멘티 이런 모임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들을 만나갖고 서로 이제 취향 파악 같은 걸 해줘갖고 자기들끼리 그 데이터를 갖고 매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좀 믿을 만한 어떤 데이터를 해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해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계속해 주는 추세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중장년층 참여자8)

□ 1인가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여성 1인가구가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꼭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1인가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매력적인 주제의 문화 행사, 모임, 강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함.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활동 자체가 이런 거 되게 매력 있겠다 하는 게 더 끌리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거기서 참여를 망설이게 되고 그럼 그 컨셉이 매력이 있어도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차라리 테마를 내세우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중장년층 참여자7)

카카오에 채널이 생겨서 이제 1인가구 등록을 키트 받으려고 이제 카카오톡 등록을 했더니 계속 정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1인가구들 대상으로 하는. 같이 밥 먹는 친구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심리 상담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서 되게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사실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결혼 정보회사 가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동호회도 아니고 뭔가 혼자니까 되게 외로워서 나왔겠구나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너무 의도가 명백히 보이니까 선뜻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동네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1인가구 같이 밥 먹어요. 막 이렇게 있으면 나는 속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1인가구를 너무 내세워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그냥 문화 행사 문화 모임 갖고 같이 밥 먹는 건데 1인가구를 우선시한다 정도로만 언급이 돼도 1인가구 아닌 사람들은 선정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쓸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좀 혼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 좀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중장년층 참여자7)

- 1인가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취미 생활, 일상생활 정보 나눔(도봉구 정보, 교통편 팁, 의료기관 소개), 일상생활 관리(집수리, 반찬 만들기 등), 정서적 지지, 도봉구 지역 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함. 1인가구를 위한 지역 마켓이나 팝업 마켓(텃밭 작물 나눔, 먹거리 나눔 등)이 활성화되었으면 함.

용산구나 종로구 이런 데는 보면은 1인가구들끼리 비슷한 부분 어떤 공연을 본다든가 아니면 도봉구에 보니까 이제 도봉구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무슨 간송 옛집이라든가, 연산군 묘라든가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탐방하는 거를 1인가구끼리 모아놓고 주말이나 그런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비슷한 연령대나 이런 걸로 해서. 도봉구의 자체적인 그런 문화 그런 거를 탐방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중장년층 참여자8)

간단하게 이제 1인가구 집 수리하는 법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고. 문고리 같은 거 고치는 거. 꼭 강사를 섭외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좋은 프로그램들 모아갖고 1인가구끼리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살림 노하우 같은 거 팁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리나 반찬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것 괜찮고.(중장년층 참여자8)

합정이나 그런 젊은 1인가구들이 많이 사는 데는 마르쉐같이 지역 마켓, 팝업 마켓 같은 거를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구에서 하는 거 이제 나눔 텃밭 그거 분양받아서 덕성여대 앞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진짜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 본인이 먹지 못하니까 다 버리고 안 뜯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1인가구들도 되게 많으니 그러면 이게 조금 연계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장을 구 차원에서 마련해 주면 자기 거 뜯어와서 정말 싸게 팔든 아니면 다른 사람 것과 교환하든 뭔가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중장년층 참여자5)

- 1인가구를 위한 세금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고려되었으면 함.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1인가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음. 저출산 정책의 기초 아래에서 1인가구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의견임.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결국 그거는 지원이라는 게 문화고 뭐고 이런 거는 그걸 접하는 사람은 접하지만 또 못 접하는 사람은 안 접하고 그냥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1인가구면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전기세든 수도세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실질적인 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중장년층 참여자7)

1인가구 세금 더 내야 한다, 싱글세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 임신을 하고 뭐 하면은 제가 대체를 하고 그냥 1인가구라는 이유로 누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 가정이 있으면 애기 엄마니깐 또 제가 대체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 분위기는 애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다가 또 저출산이니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묘하게 피해를 보는 건 너무 많은데 1인가구로 그러면서도 싱글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중장년층 참여자6)

다. 노년층 1인가구의 욕구 및 정책 제안

□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지 지원이 필요함. 노년층 1인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 주택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공동 주택이 있으면 안전함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안부, 건강을 챙겨줄 수 있으며 의료적 지원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저번에 mbc에서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만 임대주택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다 같이 살더라고요.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않고 이웃들이 다 되더라고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오피스텔 같은 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국가에서 해주면 또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도 안전하지도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 조그만 집을 하나 산다. 그래도 너무 속는 예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좀 해주면 배려해 주면 좋겠어요.(노년층 참여자10)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은 다세대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감 있는 주택을 원하죠. 매달 나가는 월세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되고. 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좀 건강도 챙기고. 먹는 것도 혼자 해먹기가 힘드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을 받으면 좋죠.(노년층 참여자11)

도봉구에 그래도 뭔가 좀 여유 주택지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주택이 있으면 내가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관계를 또 서로 이웃들하고 지내기가 좋고. 그걸 또 나라에서 관리해 주면 최고로 좋죠. 개인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모든 게 어려워요.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불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뛰어내려가지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노년층 참여자10)

□ 노년층 1인가구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함. 혼자 사는 노인은 스스로 건강하게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찬 지원, 먹거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함.

1인가구니까 건강에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노년층 참여자12)

음식도 잘 못하고 거기에 또 취미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진짜 반찬이라도 좀 주면은 좋겠어요. 혼자서 영향을 맞춰서 해먹기도 어렵고.(노년층 참여자10)

□ 도봉구 내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복지 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음. 구체적으로는 악기, 언어 배우기, 스마트 기기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구 차원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구요. 기존에 또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할 만한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 얼마 전에는 요리하고 그런 걸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단기였고.(노년층 참여자12)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남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고, 노인이라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만남의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노년층 참여자9)

□ 구에서 제공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에는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양한 홍보 채널의 개발이 필요하겠음.

주민센터 옆에 주민들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노년층 참여자10)

같은 동네에 살아도 단절이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소통들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맨날 집에만 있는 노인네들은 뭐 한다고 해도 하는지도 몰라요.(노년층 참여자12)

□ 노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능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간식 같은 거 나와도 아주 저소득층은 주고 그러고 또 복지관에서 이제 밥 같은 먹으면 공짜로 먹는 사람 있고 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을 참 많이 얘기해요. 아주 재벌들 아닌 다음에는 다 평준화하게 나눠주었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하여튼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잘 다스려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중장년층 참여자10)

여기가 노인이 많대요. 도봉구가. 근데 너무 없는 사람 위주로만 그렇게 그냥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반찬 없이 살고 간식 없이 살고 또 아끼면서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다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막 건강 챙기고 그런 거는 경제적인 거라 상관없이 다 어려워니 좀 더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중장년층 참여자11)

라. 주거취약층 1인가구의 욕구 및 정책 제언

□ 고시원의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함. 그와 더불어 고시원의 안전 문제도 심각함.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알콜 문제, 방화 문제 등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상황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은 그냥 진짜 옛날 고시원이에요. 화장실이고 샤워실이고 다 공용이에요. 에어컨도 그냥 한 대 틀어놓고 지금 거기에 있는 스물 몇 명이 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게 많이 힘들고.(주거취약층 참여자13)

안전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한폭탄이라고 봐요. 막 가스 밸브랑 가스 그 게 돌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도 봤고 냄비 타는 것도 한번 발견을 했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복도 쪽에 창문을 다들 열어놓는데 저는 솔직히 못 열어놓고 어느 누가 막 소화기 뿌리고 들고 막 뭘 할지도 모르니까 무슨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문 열어놓겠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힘들죠.(주거취약층 참여자13)

고시원 주인은 어쨌거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 그러니까 경영비랑 그걸 아껴야 되니. 시설이 어차피 노후돼도 하기가 뭘 만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경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사장 입장에서는 안 해주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이제 자기도 더하기 빼기 하면은 그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주거취약층 참여자13)

1인가구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다른 것들 아니면 벽지 같은 것들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해준다거나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줘봤자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은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그냥 술 먹고.(주거취약층 참여자13)

□ 사례관리를 위하여 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 고시원에 찾아온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서적 지지, 모임을 통한 교류, 주거지 상향에 대한 정보, 취업 정보 등을 얻게 되어 생활 전반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음.

복지사님께서 고시원을 일일이 방문해서 도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고시원에 이제 제 방문도 하시게 되고 그러시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먼저 접근을 해 주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최고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마 그분 없었으면 저는 계속 캉패짓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주거취약층 참여자13)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환경은 잘 모르겠는데 복지사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복지사님 같은 분들을 좀 늘리셔갖고 집중 케어를 좀 해 주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보호자처럼 느껴져요. 진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이분이에요. 저는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저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도 20몇 년을 캉패했던 사람인데 모임 가자고 그냥 가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드리는데 나한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깐.(주거취약층 참여자13)

복지사 한 분이 한 3개동 정도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압박 수비라고 하죠. 복지사님이 그냥 압박 수비를 좀 해줘야지 그분도 이제 마음의 문도 열고 하거든요.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주거취약층 참여자13)

□ 고시원과 같은 주거취약층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인가구를 우선 먼저 파악하는 거. 가족이 있는 1인가구인지 가족이 없는 1인가구인지도 알아보고.(주거취약층 참여자13)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파악인 것 같아요. 파악. 5동에 1인가구가 몇 천 명 되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실제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그룹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주거취약층 참여자13)

□ 남성 1인가구의 경우, 건강한 식사를 챙기는 것이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임.

아무래도 고시원이다 보니까 밥을 갖다가 먹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 내에서 그다음에 또 눈치도 보이고. 밥통에 항상 밥은 해놔요. 근데 이제 밥에다가 김치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뭐 고기라도 이렇게 구우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눈치 보이고 생선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찌개 같은 것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한국 음식들은 직접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더라고요.(주거취약층 참여자13)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을 이제 바깥에서 드시고 저녁만 그냥 간단하게 드시거나 먹고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거의 영양은 신경 안 쓴 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버티자라는.(주거취약층 참여자13)

제 2 절 도봉구 1인가구 현장 전문가 FGD

1. 조사 개요

- 도봉구 내 기관에서 현재 1인가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여러 경험과 생각들을 수집하여 1인가구의 특성 및 욕구,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한 제언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함.
- 지역 내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도봉구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FGD는 도봉구 내 기관에서 현재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을 통한 그룹 인터뷰로 약 100분 정도 실시하였음.

[표 5-3] 지역 전문가 FGD 개요

구분	세부 설계
대상	도봉구 내 기관에서 현재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 10인
방법	오프라인 FGD
기간	2023년 7월 17일, 약 100분 소요
내용	1인가구 대상자의 특성, 전문가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1인가구의 주요 욕구, 1인가구 문제해결 및 개입 우선순위 사업 수행 경험 및 어려움, 각 영역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 1인가구 사업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도봉구 특성 및 지역 네트워크 등

- FGD에 참여한 도봉구 기관 실무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소속 기관은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약자와의 동행 TF 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등임.

[표 5-4] 도봉구 기관 실무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소속	직책
실무자	참여자 1	여	공공사회복지서비스기관	부센터장
	참여자 2	여	민간사회복지행정기관	간사
	참여자 3	여	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관	팀원
	참여자 4	여	구립사회복지서비스기관	선임팀장
	참여자 5	여	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관	사회복지사
	참여자 6	여	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관	과장
	참여자 7	남	공공행정기관	주무관
	참여자 8	남	공공행정기관	팀장
	참여자 9	여	공공행정기관	주무관
	참여자 10	여	공공행정기관	주무관

2. 주요 결과

□ 도봉구 내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수렴하고 중복되는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봉구 1인가구의 연령별 욕구 및 동별 특성이 다름. 연령별 욕구의 경우, 20~30대는 취업 등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등을 주로 호소하고 있으며, 40~50대는 실직, 건강악화, 가족해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건강악화, 돌봄 등을 주요 이슈로 가지고 있음. 동별 특성의 경우에는 우선 동별로 주로 거주하는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특성이 있음. 창동권은 고시원 밀집지역이며 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낮고 방학권은 수급권자가 많으며 차상위권 비율이 높음. 쌍문권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도봉권은 노년층 거주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취약한 요소를 가진 주민들이 많음.

20, 30대들이 유입되는 경우들은 안정적인 취업이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리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랑 코인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슈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죽고 싶다는 글을 인터넷 SNS에 올리는 경우에 경찰 통해서 저희한테 유입이 되고 있고...(중략)...그리고 두 번째가 대인 관계인데 주로 연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거 같구요. 40대 이상으신 분들은 실직, 건강 악화,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고 65세 이상 노인층은 대부분이 건강과 돌봄이예요(실무자 참여자1)

방학동 이런 데는 이제 주택가가 많다 보니깐...(중략)...창사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대다수니깐 일반 중장년이 많을 거고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봉 쪽은 노인 분들이 많고(실무자 참여자7)

□ 1인가구 대상자 발굴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음.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숨은 이웃을 발견하고 고시원 방문을 통해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 고시원, 동네 발굴 및 연계 측면에서는 당사자 리더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음.

그들이 고시원에 지내신다고 해서 다 부적절한 게 아니더라구요. 그 안에 또 리더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제가 했던 교육이 한 번은 우울증이었고 한 번은 자살 예방 교육이었고 이번 달이 불면증 교육인데 제가 그 교육을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당신들이 우울하거나 자살 고위험군이라서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11개 고시원을 대표해서 오신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교육 들으시고 우리 고시원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지관 통해서 당신들이 직접 안내를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눈이 반짝반짝하시는 거예요(실무자 참여자3)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이나 우체부 이런 분들이 했는데 사실 아파트 내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실무자 참여자6)

예전에 청년 사업했을 때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카페나 PC방 위주로 홍보라든지 관계를 맺고 했을 때 지역 안에서 발굴되는 게 중요하니까 지역 안에서의 활동가를 양성하고...(중략)...상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게 1인가구 분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PC방에서 역으로 추천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주 오는 친구가 뭔가 하고 다니는 부분을 보고 그 안에서 추천을 해주는 발굴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실무자 참여자5)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동네에서 큰 단위가 아닌. 편의점 뭐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실무자 참여자4)

□ 기존 1인가구 지원 사업에서 개선 사항 중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지원 사업 종류가 많은데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낮아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영역별로 정보를 묶어서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카카오톡을 깔아놔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채널이라는 거를 들어가는 걸 못하세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뭔가 홍보가 됐을 때는 한계가 있고 정보를 못 받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지만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장애 판단을 받은 분들은 만나보면 나 사진 찍을 줄도 몰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루트를 여러 가지로 좀 열어서 진행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실무자 참여자3)

홍보 채널은 최대한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채널 이용 그걸 좀 분석해가지고 이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영역별로 정보를 묶어가지고 그걸 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자로 만들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 번 보고 말거나 아니면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좀 루틴하게 보내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겠죠. 평소에 그냥 넘어가도 약간 그런 식의 홍보 방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실무자 참여자9)

□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 교육 진행을 하더라도 일반 가구에 비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계층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핵심 대상 발굴을 위한 유인책이 프로그램 진행 이전에 먼저 필요함.

저는 정보 제공에 있어가지고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범위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중년 이상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거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런 경제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어요. 전화나 따로 일대일로 접촉을 해가지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뭔가 그분들을 끌어내는 것과 뭔가 그분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실무자 참여자6)

핵심 타킷은 나오지 않으니 그 핵심 타킷이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프로그램 이전에 더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실무자 참여자2)

지금 쌍문1동에서 광역이랑 해서 푸드 찾아오는 거를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가 각 구에 하나씩 있어서 대상자가 오셔가지고 그걸 이용하시고 지금 또 시범 사업으로 야간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택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쌍문1동에서는 일단드림마켓이라고 해서 일단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한 번 이용이 가능하고 물건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2회차가 되시면 그 분은 상담을 해야 해요 무조건.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보자 이런 식으로(실무자 참여자4)

□ 1인가구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1인가구인 것을 드러내기 꺼리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예비)1인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비, 실질 1인가구의 참여도 확대하는 의견이 있었음.

이제 서울시에서도 저희는 1인가구 사업할 때 예비라는 말이 꼭 붙어요. 근데 그 예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1인가구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다.(실무자 참여자10)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인가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예비 1인가구도 포함이 또 되면은. 보통 예비라고 하는게 저희가 이제 좀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는 앞으로 2년 안에 조금 독립을 할 1인가구를 예비 1인가구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는 독립을 좀 준비하고 있다거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선 과정에는 그 자녀를 이제 보내야 하는 경우 이제 어디 학교든 직장에 대해서 분리돼야 되는 경우 노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이제 따로 보내거나 사별도 있을 수 있고 이혼도 있을 수 있고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실무자 참여자9)

□ 1인가구 사업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트워크 공간을 지원하는 제안이 제시되었음. 온라인의 경우 양방향 소통채널 개설로 1인가구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줄 수 있음. 공유부엌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구청 앞 물물교류, 소분 안전 공간 지정 등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1인가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취미생활이나 정보 나눔이나 지역에 왜 맘카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인가구들도 일상생활에서 교통편의 tv나 우리 동네에 좋은 기관, 맛집 이런 거 소소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좀 나누고 교류를 하고 일상생활 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실무자 참여자3)

저희 다른 데에서 회의할 때 1인가구 먹거리 남는 거 공유하는 얘기도 계속 나왔던 냉장고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냉장고는 예전에 했었는데 잘 운영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냉장고가 냉장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트워크 공간을 구성해서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거기 회의에서도 사실 포인트긴 했었었거든요(실무자 참여자6)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요즘에 마켓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같은 거 팝업 같은 그런 형태도 괜찮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신선하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실무자 참여자8)

- 1인가구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동물을 키우는 1인 청년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및 치료 프로그램 개설하거나, 자활근로를 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근로 시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 외에도 보다 원활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건 청년 쪽 얘기가 고립 청년 은둔 청년 많았는데 그들의 발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동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반려견으로 좀 접목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가 많으니까 구 자체에서 반려동물을 활용한 어떤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을 진료해 준다든지 치료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하면 그래도 그런 청년 고립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 뭔가가 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실무자 참여자8)

중장년의 경우에는 자활에서는 어쨌든 근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로시간을 인정해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서로 논의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런 유인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실무자 참여자10)

뭔가 이미 있는 그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실무자 참여자1).

- 네트워크 및 연계 차원에서는 센터,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음. 도봉동의 경우 창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MOU를 체결하여 중장기 사업 협력을 진행한 바 있음.

중장년 사업을 저희 관할동 3개동 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MOU 협약을 체결 해서 주민센터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저희가 같이 중장기 사업을 협력하고 있어요.(실무자 참여자3)

(잘 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 복지관이 혼자 있으면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구청에도 요청을 하지만 사실 개인 정보의 민감성은 동의를 하지만 어떤 저희가 상담한 걸 토대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사실 개인 정보 제공이 정말 안 돼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합을 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오픈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실무자 참여자10).

제 3 절 소결 : 결과 통합 분석

가. 도봉구에 대한 인식

□ 청년층

-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생활 터전으로 인식하지 않음.
- 생활 전반적으로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부족하고 교통편이 불편함.

□ 중장년층

- 타 구에 비해서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 주로 가족 단위나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음.
- 비교적 여성 안전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음.

□ 노년층

- 여전히 대다수의 복지서비스가 선별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을 위한 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 적고 접근성이 낮음.

나. 1인가구의 영역별 주요 욕구

1) 주거

□ 노년층

-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 지원(임대주택 등)이 있었으면 함.

- 노년층 1인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 주택이 제공되었으면 함. 공동 주택이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안부, 건강을 챙겨줄 수 있고 의료적 지원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 주거취약층

- 고시원의 경우, 환경 개선이 절실함.
- 고시원에 거주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함.

2) 안전

□ 청년층

- 귀가길, 혼자 거주 등의 위험 요소가 높으며 특히 여성 청년층 1인가구의 안전 문제가 심각함.
- 어두운 거리, CCTV 부족 등 안전 문제가 보완되었으면 함.

□ 중장년층

- 여성들은 안전에 신경이 많이 쓰임.
-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1인가구임을 오픈하기 쉽지 않고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임 등에 쉽게 나가지 못함.

□ 노년층

-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응급 상황이나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움.
- 지역 내 교류를 통해 안부, 의료적 지원, 위급 상황 시 도움 요청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주거취약층

- 고시원의 안전 문제도 심각함.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알콜 문제, 방화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음.

3) 건강

□ 모든 연령층

- 1인가구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기 쉬움.